

Nov.
In
Kandal

Phlieng

안절부절 껌달팀의 11월이야기

시간은 제멋대로 흐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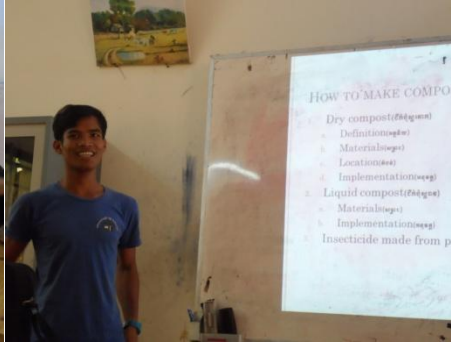
Contents

- Atti week · 002
- 피름 미미 · 004
- YDP활동 · 006
- 기후변화트레이닝 · 009
- CDP활동 · 010
- 이상형월드컵 통통 · 013
- Midterm Evaluation · 014
- 물 축제, 어디까지 가봤니 아니 · 017
- 중간평가 뒷담화 쌤 · 018
- End poverty campaign · 020
- 먼나라 이웃나라 통통 · 023
- 350ppm · 026
- 이야기 모임, Jam! · 028
- 동물원 소박 · 029
- 나는 누구까 아니 · 032
- 에세이 · 033



November

Sun	Mon	The	Wed	Thu	Fri	Sat
						1 Visa Trip 베트남 국경
2	3 Staff meeting Peace Club 센터 내 수경재배 설치 English	4 Eco club 한국어	5	6 Water festival (본옴퐁) 구경 라간사님 입국	7 Water festival (본옴퐁) 구경	8 정간사님 입국
← Atti week →				← 중간평가 →		
9 중간평가팀 입국	10 CDP 마을 견학	11 중간평가 PT	12 KB 프놈펜지점 중간평가팀 출국 두 간사님 출국	13 한국어	14 기후변화Training End poverty Campaign 3th	15
16	17 레스토랑 meeting English 경미 태운 Jam	18 CDP 활동 한국어	19 빈곤퇴치 현수막 제작 English	20 CDP 활동 한국어	21 CDP 활동 End poverty Campaign 4th	22
23 어덤 가족과 동물원	24 CDP 활동 English	25 CDP Meeting CDP 활동 한국어	26 CDP 활동 English End poverty campaign	27 CDP 활동 한국어	28 End poverty Campaign 5th	29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31						



| Atti week |

매달 첫째 주 클럽활동, 쿠킹파티, 스태프미팅, 레스토랑 미팅을 진행하지만 휴일이 겹쳐 몇몇 일정이 취소됨.

- **Staff Meeting:** 한 달에 한번 하는 미팅으로 YDP, CDP 담당 세끄다이, 썸낭, 탄과 함께 레스토랑 미팅 날짜를 잡고 CDP 새 마을에 대한 것과 센터 내 Hydr oponic(수경재배) 증설 이야기를 나누었고 중간평가 일정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 지난 번 회의 때 질문했던 레스토랑 미팅에 관한 것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등 요청한 부분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해주셨지만 여전히 미팅에서의 소통문제가 있어 스태프도 우리들도 듣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 **레스토랑 미팅:** 유스들의 주도로 운영할 레스토랑에 대한 사업계획을 10기부터 하고 있었다. 11월에 유스, 스태프, 아띠가 모여 처음으로 레스토랑 미팅을 하게 되었다.

현재 'Rose wood' 라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스 2명(쓰라이 로하트, 세이원)이 함께 했는데 실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계획 세우기보다는 소극적인 태도에 아띠 주도로 흘러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다.

• CDP 지역에서 나는 작물을 이용하고 협동조합 방식을 고려하는 등 음식, 디자인, 가게운영에 있어서 환경적이고 건강한 방식을 가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지만 피상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 우리와의 미팅 전에 유스와 탄이 이미 한 번 회의를 했고 그 회의내용에 코코넛 그릇을 사용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비슷한 사례로 슬로비카페 이야기를 준비하고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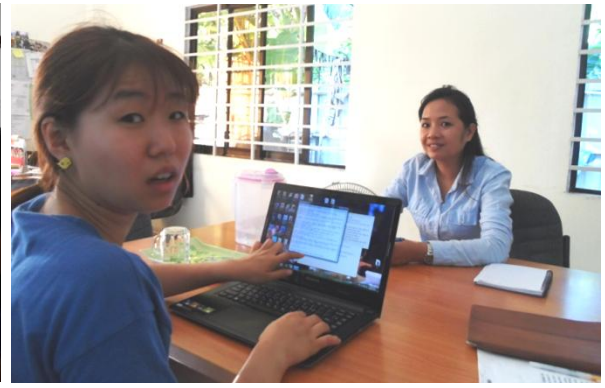
▲ 두 번째를 맞은 환경클럽. 클럽 명을 정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 CDP 유스 인터뷰에 관한 미팅: CD반 학생 들 중 소포안, 사빈, 피에루이 간달 주에서 한 달간 실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졸업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실습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나누는 미팅자리에 참석했다.
- 우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들어갔고 또 활동을 하기보다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우리를 카리타스의 일원으로 생각해주시고 미팅 내용 한 마디 한 마디를 다 번역해 주시는 배려에 감사하며 미팅에 열심히 참여했다.
- 하지만 일정을 미리 알았으면 이 미팅에 맞는 부분을 더 조사해서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 에코클럽: 지난 시간에 완성한 포스터 그리고 클럽명을 바탕으로 클럽명을 투표했고 셀라가 적은 판다이 쓰리 싸안(지구는 예쁘고 아름답다)으로 결정했다.
- 이번 시간에는 유스 소포안의 진행으로 친환경 비료

만들기 이야기를 들었다.

주로 환경 클럽이라고 하면 환경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거나 활동을 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친환경 비료 만들기 PPT를 진행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

- 또한 IT반과 미술반 친구들이 CD반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흥미로워해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 평화클럽: 언어가 다른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만으로도 평화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평화클럽을 개설했고 첫 번째 시간에 평화클럽은 일종의 개념확장으로 평화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동영상과 그림 감상을 했고 서로가 ‘평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들었다.
- 평화에 대한 유스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와 다른 생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고 아띠위크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선의를 가진 일을 계속해서 하세요. 아띠들은 젊고, 그런 일을 할 시간이 많아요. 멈추지 마세요”

phirum

부록 #1 카리타스 스텝 아름다운 그녀 ‘피룸’과의 인터뷰

카리타스에 취미가 친절한 남자가 있다면(리티), 취미가 선의인 여자도 있다.
우리에게 아침마다 크메리어 수업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주는 등 다양한 선의를 아띠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녀.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모기약과 전기파리채를 챙겨주는 세스까지
우리는 그녀가 궁금했고, 그녀와의 인터뷰에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몰랐던 그녀의 이야기, 모습 모든 것들이 매력적이다.
피룸의 매력을 파헤쳐 보자.

- 안녕하세요, 피룸! 카리타스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YDP 매니저로서, 가난한 유스들을 위한 직업 훈련을 돕는 것 외에도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7년 동안 카리타스에서 일했습니다.

- 취미로 즐기는 일이 있나요?
 많아요. 매번 저의 자유시간에는 친구들을 모아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회적 활동들을 하고는 해요. 가난한 마을을 방문해 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돈을 모아 작은 것들을 사주기도 하지요. 아, 카메라도 좋아해요. 시골 지역이나 자연물을 찍는 것도 좋아해요.

- 매일 아침 아띠들에게 캄보디아어 수업을 해 주고 있어요. 어떤가요?
 이전 라온아띠 기수 동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선생님이 되어서 아띠들과 공부하는 것은 정말 신나요! 아띠들이 마을 사람들, 혹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요.

- 매일 30분 쯤, 그것도 영어로 진행하는게 힘들 수도 있는데 혹시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나요?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 나눔, 서로간의 이해 등을 생각해야 해요. 아띠들이 이해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30분이면 충분해요. 방해가 아니라, 서로 간의 나눔일 뿐이에요.

-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서든 먼 곳에서든.

특별히 아버지를 존경해요. 언제나 가족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셨죠. 아버지는 정부에서도 일하셨는데, 아이들을 위한 자원 봉사자로 일하시기도 했어요. 진심으로 존경해요.

또한, 라온아띠와 같은 젊은 친구들도 존경해요. 한국의 집에서 5개월이나 떨어져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일종의 '희생'이라 생각해요. 스스로도 배우고 있고요. 라온아띠 팀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 사무실에 여성 직원이 거의 없어서 아띠들이 들어왔을 때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사무실에 여성 직원이 없어서 정말 외로웠어요. 심지어 그때는 소포안(다른 까리타스 여성 직원)은 KCDDP 에서 일했고 저는 YDP에서 일했기 때문에 각자 따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때문에 라온아띠가 왔을 때 정말 좋았고, 항상 인사해주고 다가와주고 이야기해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어요. 형제, 자매나 마찬가지로요. 서로를 신경 쓰는 마음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것, '관계'예요.

- 며칠 전, 바탐봉으로 아띠들과 떠났었어요. 아띠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피룸에게는 어땠나요?

제 고향이었고. 아띠들을 데리고 갈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또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요.

사실 아띠들이 아프거나 병이라도 걸릴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다들 튼튼해서 문제가 없었지요.

- 피룸에게 바탐봉이란?

저의 고향이에요. 너무 좋고, 너무 의미 있는 곳이에요. 저는 바탐봉이 싫어서 간달로 떠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왔던 것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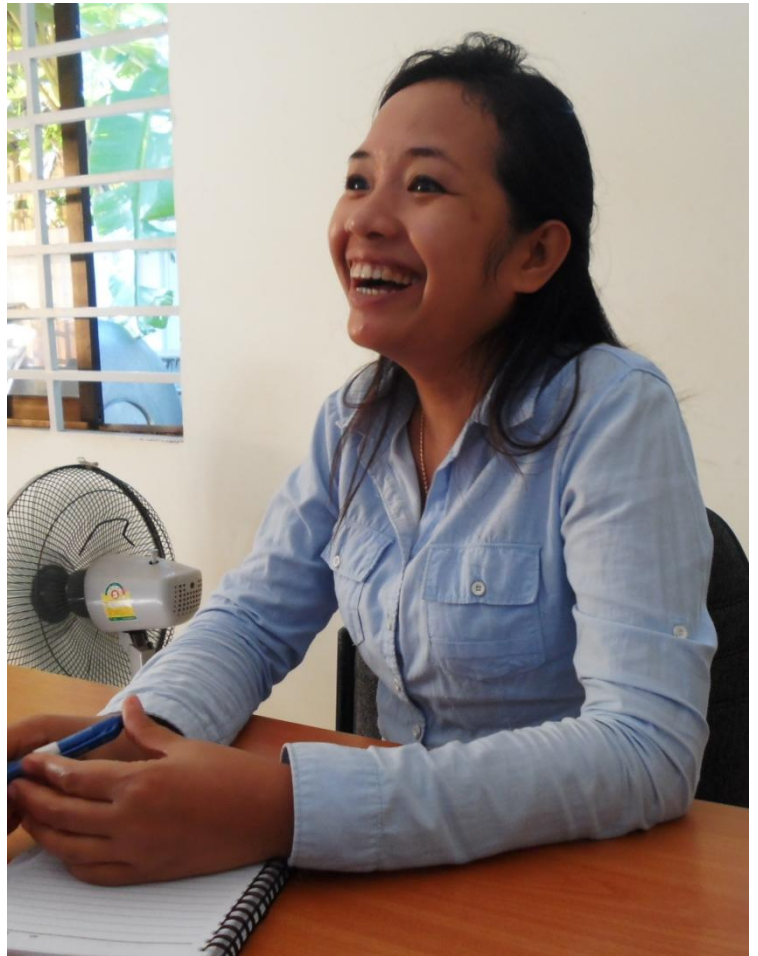
- 라온아띠가 까리타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아띠들은 젊어요. 한국에서 이곳으로 왔고, 정말 열심히 배우려 하죠. 저는 아띠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띠들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래의 유스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된다고 생각해요.

-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있나요?

남을 돕는 것과 같이 선의로 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누군가를 돕는 등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아요. 그럴 때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죠.

- 남편분과 언니도 만나게 되었는데, 두 분 다 NGO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들었어요. 자세히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언니는 1993년부터 여러 NGO에서 일해오고 있어요. 남편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월드비전에서 일하고 있구요. 저희 가족 역시 가난했었고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어요.

저희는 가난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도울 수는 없지만 NGO에서 일하며 빈곤층을 도울 수 있지요. 가난한 유스들이 공부할 수록 돕는 것은 저의 삶의 목적이예요. 돈이 없어서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가 없기 위해서요. 남편은 크리스찬이고 저는 불교신자이지만 저희는 매일 매일 함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저희는 절대 음식을 낭비하지 않아요.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이 남아도 그것을 싸가서 부랑자 분들에게 가져다 드리죠. 과거에 저 역시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기도 했기에 그 고통을 이해해요.

- 아띠들에게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선의를 가진 일을 계속해서 하세요. 아띠들은 젊고, 그런 일을 할 시간이 많아요. 멈추지 마세요.

다른 나라에 좋은 일을 하러 온 만큼 선의와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해요.

정말 행복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함께할 때이고, 그럴 때에 진실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예요.

라온아띠 팀이 아니더라도 사회 속에서 당신의 삶을 통해 선의를 실현하기를 바래요.

| YDP활동 |

카리타스 센터에서 Youth 및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수, 목은 영어 화, 목은 한국어 수업 시간을 진행.



꼬마반 영어 / 한국어 수업

<영어>

- 지난달에 단순히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시청했던 'Krishna'라는 애니메이션이 대히트를 쳤고 그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 결국 11월부터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마음으로 'Krishna'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 여인 팀원이 유스반에서 꼬마반으로 이동했고 그것에 맞추어 세 모둠반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했다. 태윤 팀원은 남자 초등반을 여인 팀원은 여자 초등반을 동효 팀원은 영유아반을 맡았다.
- 수업은 세 파트로 진행된다.
첫째, 오늘 볼 영상에 나오는 **영어 단어 다섯 개를 배운다.** 명사2개 동사/형용사2개 동물이름1개를 배우는 데 이때 두 번 정도 다같이 읽고는 화면을 가린 채 한 친구가 몸으로 단어를 표현하면 다른 친구들이 맞추는 **퀴즈게임**을 진행한다. 이번 주에 배운 단어는 다음 주에 다시 퀴즈게임을 통해 복습을 한다.
둘째, 각 자 모둠반으로 돌아가 준비한 프린트물로 공부한다. 초등반은 주로 **단어 따라쓰기**를 하고 유아반은 단어 몸으로 표현해보거나 그림과 글자 **이어 줄긋기**같이 수준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
셋째, 다같이 대히트 애니메이션 'krishna'를 본다. 영상 중간 중간 오늘 배운 단어가 나올 때 마다 같이 따라 읽어본다.
- 애니메이션 방식과 모둠반 방식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흥미도와 집중도가 지난 달보다 높아졌고 우리들도 한 명 한 명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

- 영어수업과는 달리 아이들과 더 적극적으로 노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했다.
- **동요배우기:** 지금까지 6개의 동요를 배웠는데 <우리집에 왜 왔나>, <즐겁게 춤을 추다가>, <동대문을 열어라>처럼 가위바위보 같은 게임이 녹아있는 동요는 아주 좋아하고 잘 따라하는 반면에 <잘 있어요>, <닭장 속에는 암탉이>처럼 가사 위주의 동요는 어려웠다. <올챙이송>도 같이 배웠는데 전기수 활동 때 한번 해서 그런지 쉽게 잘 따라했다.
- **영상보기:** 원래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시청했는데, 영어반에서도 애니메이션 수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과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일주일에 한 번 30분으로 줄였다.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보았는데 그 중 ‘둘리’의 호응이 가장 좋아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 **체육활동:** 국내훈련 때 수원Y 아기사포즈단 지도자 활동 때 했던 공을 이용한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공 뒤로 넘겨받기, 공 굴려서 전달하기를 진행했다.
- **미술활동:** 페이스페인팅, 친구 얼굴 그리기를 했다. 그 중에는 감각이 뛰어난 친구가 있어서 놀랐고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더 다양한 미술 수업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에피소드1. 잘가요 내사랑: 꼬마반의 에이스 까에우와 나룻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 수업에 오지 못하게 되었다. 반에서 가장 나이도 많고 수업 참여도도 높아서 언제나 동생들을 이끌어 주는 반장역할을 하던 친구들이 빠져서 수업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기도 했다.

에피소드2. 페이스페인팅? 페이스두들링?: 페이스페인팅을 따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손과 마음이 가는.. 대로.. 아이들의 얼굴에 그림을 그렸는데 아이들이 수업도중에 갑자기 세수를 하고 와 당황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 문제의 페이스페인팅

에피소드3. 공주님 행차하신 날: 체육활동을 하던 날, 새로운 친구들과 아이들 숫자가 갑자기 늘어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들뜬 상태였다. 그러다 아이들이 공놀이를 시작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다니 한 명, 두 명 그렇게 열다섯 명이 뛰쳐나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때 쓰라이 니웃이라는 친구 한 명만이 남아 수업을 끝까지 듣고 갔는데 그날 동효, 경미, 태윤팀원이 고마운 마음에 물도 떠다주고 영상 볼 때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혀주고 마지막엔 집에 까지 안아서 데려다 주는 등 공주님으로 모셨다고 한다.



▲ 의리의 공주님, 쓰라이 니웃

- 아이들이 더 재밌게, 더 자연스럽게, 더 자유롭게 한국어를 익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놀이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이로 인해 아이들의 폭력성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소통의 문제일까 싶어 유스 자원봉사자를 찾아 함께 하려 했으나 졸업시즌으로 유스들 상황이 맞질 않아 계획이 무산되었다.
- 다양한 놀이와 활동으로 진행하면서 수업의 분위기가 놀이를 통한 한국어 익히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때우는 놀이방이 되는 것 같아 회의가 들었다.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학과 같은 과목으로 바꾸면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수업 방식을 바꾸기 보다는 미술, 체육 등을 넣어 수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로 했다.

Youth 한국어 / 영어 클럽

한국어클럽

Youth들이 인턴십 활동이나 직업을 찾아 센터를 떠났다. 그 결과 센터에 남아 있는 Youth들이 많지 않아 클럽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 들었다. 하지만 학습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꾸준히 한국어 클럽에 참여하여 이전보다 더 집중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11월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서로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각 나라의 노래를 서로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아띠는 ‘아리랑’을 가르치고 Youth는 아띠에게 ‘Arabia’ ‘Holiday’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11월 중반부터는 Youth는 아띠들에게 한국어 쓰기 및 읽기를 배우고 아띠는 유스로부터 캄보디아 어휘를 배우고 있다.

영어클럽

줄어드는 학생 수 :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직업을 구해 카리타스를 졸업했기 때문에 요즈음은 5,6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갑자기 적어진 수에 당황했지만, 소수 정예로 진행되는 덕분에 오히려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된 것 같다. 게다가 지금의 5,6명이 꾸준히 오는 고정멤버가 되면서 준비 등이 원활해졌다.

바뀐 커리큘럼 : 10월의 설문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구직 활동이나 직장에서의 대화 위주로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다. 그룹 읽기, 파트너와 읽기, 앞에 나와서 읽기 등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영어로 말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나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문장을 직접 만들어서 말해보더라도, 지금은 배운 내용을 보고 읽거나 응용해서 조금 달라진 문장을 읽는 것 정도로 시작하고 있다.



여전한 고민 : 처음에는 학생들도 수업을 준비해서 오는 등 클럽에 대한 계획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친구들도 아띠들을 ‘선생님’이라 부른다. 처음의 방향과 달라진 것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원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면 방식을 억지로 고민하는 대신 수업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서로를 돕게끔 했다. 요즘 수업 분위기가 부쩍 더 좋아졌다. (가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장난을 너무 치지만..)

기후변화 트레이닝

총 4개의 주제(기후변화의 원인, 영향과 그 결과,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 젠더와 기후변화)로 스탭 Mr.Pheap과 Mr. Sameun이 진행하였다. 카리타스의 스탭들을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이기에 캄보디아어로 진행되었지만 아띠들도 탄이 번역을 도와준 덕에 참여할 수 있었다. 평소 환경에 관심이 있던 아띠들은 이번 트레이닝에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가고, 스탭들과 함께 대응책, 실천 방법 등을 고민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태윤(쌔뚱): 기후변화로 인해 바뀔 수 있는 사회적 성 역할과 농업 사회에서 달라지는 성 역할 등 사회적인 성 역할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진행하는 트레이닝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스탭들이 의미심장하게 전달해주어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크메르어로 진행되어서 힘들었지만 탄과 경미가 열심히 통역에 힘써주었고, 트레이닝이 끝난 후에 우리 아띠들 각자의 소감들을 물어봐 주어서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참 고마운 시간이었다.

경미(미미): 예정된 일정도 아니었고, 캄보디아어로 진행된다고 해서 조금만 듣고 가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끝까지 듣게 된 것 같다. 특히 젠더와 기후변화'는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주제이다. 이미 충분히 개발에 대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하면 더 평등하게, 친환경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카리타스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권희(소뽕): 성 차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기후변화와 젠더라는 주제까지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상기후가 생기는 문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캄보디아 이지만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에 자극 받았던 것 같다.

동효(동동): 트레이닝의 내용, 깊이와 상관없이 두 나라 사람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한 것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결국 기후변화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우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도와준 모든 스탭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여인(이니): 기후변화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캄보디아는 한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책이나 영향도 달라서 신기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상부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어덤, 소밭, 씬뭇. 그들을 조심스레 지켜보시는 이어이 용

| CDP활동 |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마을 공동체 개발 프로그램)의 약자로 주로 농업과 관련된 일을 진행 함.

(1) 센터 내 수경재배 증축: 카리타스 센터에 11기가 만든 수경재배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품종의 재배를 위해 한 동 더 짓기로 하였다.

• 마을에서 아띠들끼리 작업 할 때와 달리 Youth 친구들과 다른 Staff들이 함께 동참하여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고 이미 쓰라이 요웅 마을에서 한 동을 지어본 경험이 있어 그런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2) 따우마 마을 Hydroponic system: 10월에 설치한 수경재배는 처음 해본 작업이어서 도움을 많

이 받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렸다. 이번 설치 작업은 무려 3번째! 작업이어서 그런지 **지난 번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전 작업에서는 자재의 공급의 늦어짐으로 인해 휴식 시간이 의도치 않게 생기는 것에 대해 Staff meeting과 중간평가 때 피드백을 하였다. 그 때문인지 자재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도 빠른 진행속도에 한 몫을 한 것 같다.

• 이번에는 Caritas Staff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전 작업들 보다 훨씬 우리의 손길이 많이 닿아서 더 뿌듯하고 보람찼다.



Episode #1 햇빛에 약한 김모군

김모군의 의욕은 항상 1등이다. 하지만 의욕만큼 몸이 따라 주질 않는다. 건강해 보이지만 햇볕 밑에선 맥을 못 춘다. 팀원들의 쉬엄쉬엄 하라는 말에도 강한 햇볕아래 열심히 작업하다 소리 소문 없이 그늘에 쓰러져 있다. 병든 닭 마냥 축 처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아프다.

Episode #2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작업을 하다 평상에 쉬고 있을 때면 항상 카펫을 깔아주시고, 한 대 밖에 없는 선풍기를 우리에게 양보해주시고 몇 번이고 사양해도 결국엔 해먹을 설치해 주시고 그 곳에 우리가 눕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쉬러 가시는 이여이용, 몇 번이나 “면아이페” (괜찮아요)를 말하고 나서야 겨우 맘 편하게 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Caritas 센터에서든 지난 달의 불 아저씨 댁에서든, 지금 이곳 캄보디아에서 너무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항상 그 마음들을 잊지 말고 간직하자는 다짐을 했다.



오랜 만에 만난 깡보라저씨네 ‘쌀랏’ 친구들.
한달 여 만에 만나서 그런지 확연하게 쑥쑥 자라주었다.
우리가 만들어 준 쌀랏 친구들의 보금자리가 뿌듯하게 느껴질 만큼.
지난 10월의 불아저씨 댁에서.

아시아 7개국 결혼정보업체, 내 맘을 받아줘요-

CDP 일이 끝나고 잠시 주어지는 꿀 같은 휴식시간에 주로 낮잠을 자거나 간식을 먹는다.
 난데없이 시작되는 이야기의 주제는 사회, 과학, 경제, 문화 등 다양하지만
 가장 재밌는 건 12기 아띠들 이야기! 국내훈련 때 이야기를 하거나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너무 보고 싶어진 그대들을 떠올리며 이상형 월드컵을 시작했다!!
 (게다가 진짜 7개국에 있어서 월드컵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림)
 정말 그대들이 보고 싶어서 한 게임이니
 부디 재미있게 봐주시길!

Q. 연애하고 싶은 아띠는? / 결혼하고 싶은 아띠는?

연애 →  : 웃겨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티모르, 베르파)

결혼 →  : 결혼은 의리! 전우애같은 사랑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DJ)

연애 →  : 이유가 필요 있나?
 (캄보디아, 프렙소브)

결혼 →  : 아내에게 잘~ 해주고 잘~ 저줄 것 같아서.
 (방글라데시, 샤펠)

연애 →  : 귀여워서.
 (캄보디아, 미미)

결혼 →  : 성실하게 돈을 잘 벌어들 것 같다.
 (미얀마, 코코)

연애 →  : 운동 잘 해서.
 (동티모르, 카를로스)

결혼 →  : 재미있고 포근해서.
 (미얀마, Sik)

연애 →  : ♥ ♥ ♥ ♥

결혼 →  : ♥ ♥ ♥ ♥ ♥ ♥ ♥ ♥



| Midterm Evaluation |

2014.11.6 - 11.12 진행된 중간평가.

• CDP 지역 방문

- 먼저 우리가 활동했던 간볼 아저씨네 집에서 간달 카리타스 대표 농부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우리가 만든 수경재배틀을 보았다. 그리고 전기수가 활동한 버섯농가와 닭장농가를 방문해 우리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활동과 완성된 수경재배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보람차고 뿌듯했다.

- 미팅을 진행할 때 보여주신 농부님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고 우리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중간평가 팀에게도 무척 감사했다.

- 또한 우리가 한 일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돌아보면서 그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일했다는 생각보다는 이곳에서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 Caritas Cambodia National office

- 프놈펜에 위치한 캄보디아 카리타스 본부에 방문하여 캄보디아 카리타스에 전체적인 활동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동안 우리가 몰랐던 카리타스의 모습들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이제야 방문한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에 감동받았다. 특히 설립이념, 활동철학을 등을 자세히 들으면서 우리가 소속된 카리타스에 대한 존경심, 자부심이 더 생겨났다.

• Kb 국민은행 프놈펜지점 방문

- 프놈펜에 위치한 국민은행에 방문해 김성우 부 이사장님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은행의 여러 사업분야에 대해 듣고 은행 내부를 견학하였다.

- 은행에 계신 한 현지인 직원 분이 한국어로 하는 농담을 알아 들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셔서 정말 놀랐다. 우리도 언어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왓프놈(Wat phnom)

- 중간평가 일정 중에 평가단과 함께 프놈펜에 있는 왓프놈 사원을 방문했다. 왓프놈은 펜 할머니 설화의 배경이자 프놈펜 지명의 유래가 되는 곳이다.

- 우리도 처음 간 곳이라 중간평가 팀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없어 아쉬웠다.

• Youth와의 미팅

- 카리타스 유스, 스태프, 중간평가팀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소개를 하고 라온아띠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활동의 좋았던 점과 보충할 부분을 이야기 하는 동안 그 동안 몰랐던 유스들의 진심을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중간평가 PPT

- Mr. Meng의 간담 카리타스 소개를 들은 후 아띠들의 PPT를 진행했다.

- 많은 팀원들이 이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권희, 경미팀원이 맡아서 열심히 준비해주고 간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아쉬운 점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보여줄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우리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 우리의 담당 코디네이터 멩이 우리의 활동과 라온아띠 팀을 표현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용기와 격려를 얻었다.

• 공항: 세 번의 마중, 두 번의 배웅

- 라간사님을 마중하러 처음으로 공항에 나간 날 Mr. outdom (카리타스 스태프)과 함께 몇 시에 도착 할 지에 대한 내기를 하고 커피를 사러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간사님이 너무 일찍 나오시는 바람에(?) 간사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엄청났던 일...

- 정간사님을 마중하러 간 날에는 때마침 우연으로 이슬람교인들 수백명이 그들의 가족들을 마중하러 공항에 몰려들었다. 덕분에 정간사님의 입국이 더욱 화려했다. 이 날엔 혹시라도 저번처럼 간사님을 놓칠까봐 자리를 비우지 않고 지켰다. 그 모습을 보신 라간사님께서 '나 마중 나올 때는 커피 사러 가서 오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하시며 섭섭함을 숨기지 못하셨다.

- 10기부터 공항을 자주 나갔던 Outdom이 지루한 대기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는 지 지켜봤는데 계속해서 쓰라이 싸안(예쁘다)을 외치며 공항에 계신 아리따운

여성들을 보고 있었다. 우리 팀원 중 한 명도 그 일체가담을 해 대기시간을 아주 즐겁게 보냈다는 후문이..

- 중간 평가팀을 맞이하기 위해 현수막을 준비해야 했는데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우리가 직접 미술반에서 가져온 천에 크레파스로 색칠해서 완성을 했다! 라간사님, 정간사님과 함께 작업하면서 과거 '가내수공업'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예상치 못한 고(高)퀄리티로 마음이 너무 뿌듯했다.

• 간사님들과의 생활

- 라영석 간사님 4일, 정동민 간사님은 2일간 우리와 함께 지내셨는데 그 동안 잘 몰랐던 간사님들의 모습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특히 간사님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위로 받을 수 있었다.

- 이 외에도 간사님들께서 현수막 제작과 중간평가 발표 준비를 많은 도움을 주셔서...(말을 잊지 못한다)





부록 #4 캄보디아 물축제, 본옴뜰

물축제, 어디까지 가봤니

캠보디아가 가장 들쭉이는 시기는 10월에서 11월 경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축제 중의 하나인 ‘본옴뜰(물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기가 지나간 후 물의 흐름이 약해지는 기간에 열리는 물축제는 우기가 끝나면 물줄기가 바뀌는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 해 동안 비를 많이 내려준 신께 감사하고 내년에도 비가 많이 내려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물의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행사는 12세기에 자야바르만왕 7세가 거둔 해상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보트경기’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400여 개의 보트팀들이 참여하는 이 경기는 보트 한 척에 대략 50여 명이 한 조를 이뤄 경기에 참여합니다. 여러 개의 경주 중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보트를 타고 톤레삽 호수를 가르며 올라와 프놈펜의 메콩강을 따라 왕궁 앞까지 도달하는 경주가 주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으며 보트의 크기와 디자인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할 정도로 개성을 뽐냅니다.

캄보디아의 물 축제는 다양한 먹거리로도 유명합니다. 행사인들이

파는 음식 중 유명한 음식은 납작한 모양의 쌀 과자인 ‘옥 엄복’라고 합니다. 이 기간 중 달에게 복을 빌고 개개인의 소원을 빈 후 가족들은 ‘옥 엄복’을 서로에게 먹여주며 가족 중 가장 연장자는 자신이 손으로 먹여줄 사람에게 소원을 묻고 행운을 빌어주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간평가 기간과 겹쳐져 물축제에 관해 조사를 못해 본 채로 물축제를 구경해야 했기에 제대로 구경하지 못해 모두가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340여명 정도가 압사한 사고 이후, 캄보디아의 국왕이 돌아가셔서 3년간 축제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3년만의 축제라 그런지 더 화려하고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온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국왕이 로알팔리스 앞을 방문 했을 때, 엄청난 인파가 물려 국왕을 보기 위해 애썼습니다.

베트남 소매치기단이 국경을 넘어 본옴뜰에 왔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소지품 관리에 엄청 신경을 써서인지 아무일 없이 안전하게 본옴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중간평가

뒷담화

중간평가에 대해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작성됨.)

사회자 수원 YMCA의 라영석 간사님, 정동민 간사님과 함께 3일 정도 함께 생활했는데, 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나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크롱 나는 정동민 간사님이랑 라간사님이랑 같이 살면서, 정말 남 같았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

ROSE 솔직히 수원에서는 라영석 간사님이 바쁘셔서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친해지는 게 힘들었던 것 같거든 나는? 그러니까 친해질 시간..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은데 수원에서는.... 근데 중간평가 기간 동안 라간사님하고 정간사님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재미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여러모로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애.

다롱 처음에는 ‘왜 그렇게 길게 우리랑 그렇게 계시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 이틀 동안 일정 몰아서 다 그냥 보고 가시면 안되나?’ 부담돼서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생각해보니 ‘진짜 딱 우리 활동만 보고 가셨으면, 얼마나 진짜 평가 같았을까?’ 그런 생각도...(했다) 같이 살면서 간사님들이 편하게 느껴지고, 재미있게 느껴지고 그래서 중간평가 기간이 즐거웠지? 안그랬으면은 수원Y 때 마지막에 그냥 라영석 간사님이랑 우리 한 달 정리할 때 내가 느꼈던 이상한 공허..한 평가 같은 느낌? 그런 생각까지 했어 소 근데 (간사님들)몇 일 있었어?

모두 거의 일주일...?

소 간사님(들) 우리 집에 일주일 있었어?

코코, 크롱 라간사님이(일주일 있었어.)

다롱 그러니까 집.. 도 그렇고 생활 그냥 하루종일..

코코 정간사님 이틀..

다롱 온종일 붙어다니고...

ROSE 나는 정간사님도 되게 뭔가 공항에 딱 들어오셨을 때 너무 피곤해 보이셨대이가? 그래서 난 되게... 우리가 되게 미안해지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때문에 오신 거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도 오신 첫 날부터 막 밤늦게까지 우리랑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았거든 나는.... 진짜 그 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보였어 나는.. 되게 술을 좋아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속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볼 수 없었던 모습들도 봐서 친해진 것 같거든? 그.. 엄청 편하게 해주시려는 게 느껴졌어. 그 사람들도 평가라기보다는 격려하러 온 거고, 막 지적이나 평가보다는 진짜 우리가 필요한 말들 같은 거 해주고, 그렇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애.

소 그냥 이 집에 우리 다섯명 말고 누가 온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되었고, 어쨌든 라간사님이 우리가

수원에 있을 때에는 어떤 생활적인 면에 대해서 되게 터치를 많이 하셨잖아? 뭐 “흔적을 남기지 마라.” 이런 말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긴장도 많이 했어. 내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에서조차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할 것 같다는 생각? ㅋㅋㅋ 그래서 심지어 라간사님이 우리집(간달)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순수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서? 분리수거함 어디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내가 막 긴장하면서 막 ‘분리수거함 어디 있는지 검사하시는 것 같다고ㅋㅋㅋㅋ’ 이런 생각으로 막... 그랬는데, 진짜 진짜 간사님 두 분 호텔 간다고 하셨을 때 너무 섭섭한거야. 진짜 너무 섭섭하고....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는...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막 (식사)당번 돌리잖아? 1번에서 5번.. 거기에 6번, 7번으로 라간사님, 정간사님ㅋㅋㅋㅋㅋ 넣어가지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난 좀 아쉬웠던 게 우리가 막 장보기 막 쇼핑하기 막 이런 거 했잖아. 우리가 평소에 같이 하던 거 많이 해봤잖아. 그런데 (그것 말고도)우리가 평소에 같이 하던 일지나, 둘러앉기, 짹 이런 것도 간사님들과 해봤으면.. 진짜 우리랑 더 재밌는 시간, 더 추억거리가 되었을 텐데.... 좀 그게 아쉽다.

다롱 아니 막 장볼 때 라간사님한테 꾸이띠우(쌀국수) 막 소개시켜 주고 이럴 때 너무 재미있는 거야. 우리만 아는 걸 뭔가 알려드리는 거.. 그래서 간사님이 괜히 그거 (이미)알고 있으면은 좀 나는 약간 서운하고 그랬던 것 같애. 간사님이 모르고 있었으면 좋겠고.. 알려드리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리고 그 간사님이 막 재밌어 하는 거 보면...

코코 나는 우리 그.. 뭐지? 이 집에서 우리 다섯명 말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두 명이나 늘어난 게 엄청 신기했고, 그 진짜 한국 온 느낌이었고, 진짜 라간사님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거실에 누워계시는 거? ㅋㅋㅋ

소 그게 제일 좋았어ㅋㅋㅋ

다롱 백수 삼촌?

코코 우리가 백수 삼촌이라고 놀리는데 우리한테 아무 터치 안하고 계셨던 게 난 진짜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아.

다롱 아니 진짜 백수 삼촌같았어.

코코 뭔가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계속 (우리를)봤으면 더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진짜 거실에 누워서서 휴대폰만 만지고 계시고ㅋㅋㅋㅋ

ROSE 그것도 기억난다. 중간평가 마지막 날에 우리 딱 수업하고 (집에)돌아왔는데 라간사님 주무시고 계시던 거ㅋㅋㅋ

다롱 간사님들 빈 자리가 너무 커서 가시면 서운해서 어떻게 살지?

사회자 유스 미팅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코코 :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유스들이 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뭔가 자기들도 눈치를 봐서 솔직하게 우리랑 뭘 했는지 이야기 해줬으면 좋았을 같은데, 진짜 평소에 참여하는 애들만 참여하고, 진짜 친분이 있었던 친구들은 아무 말 안하고 있어서 좀 서운했다.

크롱 원래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이잖아.

다롱 근데 평소에 참여하는 애들만 말한 건 아닌 것 같애. 그러니까 유스미팅 때 이야기한 친구들도 우리랑 다 친한 애들이잖아. 그거 평소에 참여 많이 해서 참여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우리랑 많이 친해서 우리에게 대해 말을 해 준 것 같아. 그런데 좀 자리 자체가 너무 진지했나? 그랬던 것 같애.

소 : 나는 그 CDP 지역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고, 유스 미팅도 그렇고 그냥 엄마한테 내 친구와 내 직장 동료들을 소개하는 기분이어서 떨리기도 하고, 내 친구들이 우리 엄마한테 예쁘게 보였으면 했고, 내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예쁘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 한 유스 친구가 우리활동이 5개월밖에 안돼서 아쉽다는 말을 해서... 그 말을 하자마자 막 눈물 나려고 하고.. “5개월이 너무 짧은 것 같다.”, “더 길었으면 좋겠다.”

다롱 (울먹이며) 그 때 나도 진짜 감동적이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줄까?

소 근데 그 자리가 되게 무거운 자리라서 형식적인 얘기밖에 못하잖아? 사실 거기에서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의외로 중간평가 일정 중에서 가장 ‘아.. 중간평가해서 이런 맛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 중간평가를 이 맛에 하는구나.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위로 받으려고....

다롱 나는 옛날에 국내훈련 때 코이가 영상 보면서 단기 봉사보다 우리가 하는 게 더 길게 해서 ‘오히려 더 상처를 남기지는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유스들은 어쨌든 우리가 5개월 있다가 떠나가고 5개월 있다가 떠나가고... 하잖아? 그것도 다 자기들이 물론 관계 맺고 하는 건데,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속상하다.

사회자 까리타스 National Office를 방문했을 때 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ROSE 집중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다. 개인 발표 준비도 있고, 중간평가 발표라는 ‘숙제’가 남은 상태라 부담이 되었던 시간 같았다.

다롱 진짜 재미있었던 시간이었고, 영어를 듣는 것에 긴장하고 있어서 더 자세히 들었던 것 같다.

크롱 정확하게 통역해 줄 사람이 없어서 까리타스 National Office의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으려고 해서 더 감동이 있었다.

소 정동민 간사님의 배경지식을 덧붙인 통역이 마음에 들었다. 까리타스 단체의 특성 같은 것을 더 이해하고 통역을 해줘서... 그게 의역일지언정 그게 더 듣기 좋았다? 들으면서 정말 놀랐다.

크롱 정동민 간사님이나 경미의 여러 가지 통역을 듣는 것이 내가 까리타스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더 보충되었던 것 같아.

코코 단기간에 준비하느라 준비도 많이 못했고, 평가 받는 자리에서 많이 긴장되서 그런지 National Office에서 전혀 집중되지 않았고, 중간중간 듣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가고 싶기도 하고...

사회자 발표자들을 중심으로 중간평가 발표에 대한 뒷담화를 부탁드립니다.

소 권희 단원이 발표할 때 서울말 한 것ㅋㅋㅋ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게 좀 놀라웠어.

코코 시작할 때는 너무 긴장이 많이 되었는데, 준비했던 것 보다 더 잘된 것 같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가 했던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다롱 스탭들한테 우리의 의도 같은 것들, 보고서에 담지 못했던 거나 아예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처음으로 자세히 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 끝났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 이런 건 있지만 스스로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다. 다만, 스탭들이 판짚을 많이 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던 말이야. 근데 나중에 스탭 중 한 분이 우리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서 고마웠고, 그 자리가 의미없지는 않았구나... 다행이다.

소 중간평가 발표에 우리 다섯 명이 다 참여하지 못했잖아? 시간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게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발표가 끝나고 우리끼리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중간평가에 대해 이 말은 꼭 해야겠다!”하는 말이 있나요?

소 사무국 측에서 중간평가라는 단어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에 진지하게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굳이 ‘중간평가’라는 말을 써야한다고 하면 그 ‘중간평가’라는 말을 왜 굳이 써야되는지 충분히 납득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름은 중간평가라고 해놓고 또 와서는 “중간평가가 아니라 위로하러 온 거다.” 그러면 말을 중간 위로라고 하든가ㅋㅋㅋ

(갑자기 인자하게 웃으며) 그렇게 쓰지 말고 다시 한 번 말하면 사무국 측에서 ‘중간평가’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중간평가’를 쓰시려면 우리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끝났지만 13기한테 우리와 똑같은 혼란을 주고싶지 않고, 계속 같은 실수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

다롱 중간평가라는 말... 위로다 격려다. (눈물을 닦는 듯이 볼에 손을 대고) 그런 것들을 메일에서부터 자세히 언급해줬으면 좋겠어.

코코 아이 행복해

다롱 라간사님 건강하게 1월에 봐여요.

크롱 이제 반이 지났으니깐. 나머지 잘 살아내자.

ROSE 기말평가도 하면 안돼요?

작성자의 말

다들 중간평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뒷담화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 때의 대화는 모두 녹음을 했고, 최대한 그 때 했던 말들의 토시나 억양, 분위기 같은 것들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이 글을 통해 상처를 받거나 우리 팀에 대해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냥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들이다.



| End poverty campaign |

10월 17일 기획했었던 빈곤퇴치 캠페인을 지속해서 진행함.

- 카리타스 센터: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매주 금요일 나의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했다.
- 매주 금요일 아파-스태프-Youth 순서로 진행하는데 이번 달에는 스태프 탄과 유스 소포안, 아띠 박동효가 맡아 원활하게 순서가 돌아갔다. 하지만 아직 까지 할 때마다 유스들이 자발적으로 오기보다 우리의 홍보를 통해 오고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앞으로는 이 시간이 진심으로 유스들에게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유스 소포안이 진행할 때 크메르어로 진행을 하고 아띠들에게는 영어로 된 스크립트를 주었다. 이를 두고 지금은 그냥 크메르어로 듣고 나중에 스크립트를 따로 읽을지 아니면 캠페인의 취지를 살려 바로 통역을 할지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는데 일단은 크메르어로 듣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발표 전에 미리 이점을 의논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 처음에 캠페인을 기획할 때는 CDP 마을에서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비언어적 표현을 이용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5번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점점 언어에 벽이 높다는 것을 느끼고 비언어적 방법으로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민을 하였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중이다.



▲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My story'에 참여해 준 네 주인공

- 저번에 학생들과 다 같이 느낌을 나누는 것에 대해 피드백을 했고 매주 캠페인이 마칠 때마다 질문이나 느낀 점에 대해 물었지만 유스들이 어쩐지 쉽게 이야기 하지 못해 여전히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 CDP활동지(따우마 마을): 이번 따우마 마을에서는 '아시아 알아가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 아시아 지도 맞추기와 아시아 관련 문제 맞추기 두 가지 게임을 준비해 각 집을 돌아다니며 먼저 인사를 드리고 게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시아 지도 맞추기와 문제 맞추기 두 개다 파견국 7개국과 한국에 초점을 두고 싶어 현재 12기 각 팀에 문제 출제 요청을 했고 몇몇팀의 아직 오지 않은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
- 툭툭용 현수막: CDP 마을로 이동할 때마다 소비되는 시간과 탈 때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 받는 시선에 대해 고민을 했고 빈곤퇴치캠페인의 일환으로 작은 현수막에 문구를 넣어 툭툭이나 자동차 뒤에 달고 다니기로 했다. 회의를 통해 문구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빈곤을 조금이나마 퇴치하기 위해 썸 써바이(행복하세요)로 정했고 미술반 친구들과 함께 완성을 해 12월부터 달고 다니기로 했다.
- 나의 빈곤을 고백하기: 빈곤퇴치 캠페인의 기획서를 쓸 때부터 캄보디아 사람들의 빈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빈곤도 퇴치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섯 명이 함께 각 자의 빈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을 통해 각 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12기 캄보디아 깐달팀의 나의 빈곤 고백하기, | 지금 이 순간 나의 빈곤은 |



: 내가 가진 빈곤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질 때 그들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나도 좋아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다. 굳이 좋아하는 것이 달라도 공감대가 없어도 사람들과 친해지는 법은 다양한데, 나는 꼭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줬으면 하는 욕심이 계속 생긴다.



: 미운 마음을 미워하는 것은 오랜 나의 습관이다. 싫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미운 수도 있고, '싫어' 하고 말하고 싫은 순간들이 있는게 참 당연한데, 나는 그 순간들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늘 숨기기만 한다. 이제는 나에게 괜찮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특히 이곳에서 만난 누군가에 의해 '싫어'라는 말이 좋아지는 중이다.



: '고집' 나도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잘 모르겠다. 평소에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부딪혀 보는 편이라 그대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너희들과 3개월 간 생활 하면서 나의 이러한 부족한 점에 대해 많이 고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고쳐나갈 생각이다. 조금만 더 이런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 '모든 것을 의심한다'의 모든 것에는 너뿐만 아니라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의심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 나로 인해 상처받기 전에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박동호를 조금 분량히 여겨주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일단 너의 진심, 모든 진심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믿지 못한 것 너무 미안하다. 나도 정말 믿고 싶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고맙다. 가난해도 곤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특히 물질적인 가난 부분에서는. 근데 나는 지금 무척이나 곤란하다.



: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것'이 내 빈곤이라고 하면 놀랄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슬퍼도 되는 순간에도 슬픈 감정을 숨기곤 하는 내 모습이 빈곤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아지기를 바랐다. 아직까지는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앞으로 더 노력해 볼 생각이다.



부록 #6 베트남으로 떠난 비자트립

먼 나라 이웃 나라

11월 1일이 되기 하루 전, 카리타스 스태프이자 우리의 담당 코디네이터인 Mr. Meng (a.k.a. 곰돌이 푸) 이 내일 비자 연장을 하러 베트남에 갈 테니 너희의 입국, 출국일자를 알려달라는 말을 했다. 너무나 태연한 모습의 그를 차마 원망할 수 없었다. 게다가 거의 매일 듣는 카리타스 직원들의 “It’s flexible!(유동적이에요)”를 통해 어느 정도 면역이 생 긴 듯 우리는 스스로를 달래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떠난 낯선 길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다. 유명관광지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소문난 식당을 간 것도 아닌, 몇 시간이 나 차를 타고 달려가 베트남 국경선에서 겨우 사진 몇 개 찍고 다시 같은 길로 돌아온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도 이야기는 있었다. 그 어떤 여행으로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을 그리고 어찌면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낀 우리의 비자트립 이야기.

스칼렛 요한슨 보다 더 매력적인 그녀

이른 아침에 기어가듯 카리타스를 도착해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캄보디아 카리타스 본부에서 일하고 계신 Mrs. Thearn이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12기 캄보디아 칸달 팀에 있는) 어떤 남자 두 명이 이제껏 캄보디아에서 만난 여성 중 가장 아름다웠다고 극찬을 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소유한 그녀. 게다가 우리가 치는 모든 장난을 하나의 논문주제로 승화시킬 듯한 진지함까지 합쳐 웬지 범접할 수 없는 캐릭터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다. 베트남 도착해 사진을 찍는 뻔한 우리의 포즈를 질책하듯 연신 “free style!”을 외쳤고 그래도 영 변화가 없는 우리에게 다시 “like me!”를 외치며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포즈를 취했다. 점점 그녀의 매력에 홀린(?) 우린 모든 장난을 진지하게 받아 치는 그 모습까지도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길 가다 보인 잘 익은 바나나를 사서 몇 개가 아닌 몇 송이 썬 나눌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지루할 법한 이동시간에 외국인에게 캄보디아 노래를 가



르쳐 줄 (노래를 못할지언정) 주체 못할 흥이 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회이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녀를 어찌 사랑할 수 없으랴.

우리는 이 초라한 막대기를 국경선이라 부른다

우리의 비자ทริป 일정엔 처음부터 베트남 쌀국수가 없었다. 정말 베트남 국경선 도착이 일정의 전부였다. 그래도 차 타고 열심히 달려갔고 게다가 국경선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들뜬 우리 옆엔 캄보디아에서 본 강이 이 곳 베트남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다시 그 앞엔 보란 듯이 초라하고도 쓸쓸해 보이는 쇠 막대기가 있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국경선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론 군대와 군대가 있는 곳, 그래서 무섭기도 하지만 그 웅장함에 숙연해지는 곳이라고 떠올려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 캄보디아에 올 때만 해도 몇 장의 글을 쓰고 몇 번을 도장을 받았던 것, 잠정적 테러리스트로 취급 받으며 개인의 몸과 소유물을 의심의 눈초리 앞에서 다 비쳐야 했던

것을 떠올리면 너무 낮게 놓여있어 고무줄 놀이를 하듯 두 발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초라한 막대기를 차마 국경선이라 부를 수 없었다.

모자에도 의미가 있다

베트남에서 사온 유일한 기념품인 베트남 모자를 방 한 구석에 먼지가 쌓이도록 놔둔 이유는 다름 아닌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관계 때문에. 전쟁이 있었던 두 나라 사이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기에 겨우 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물건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아픔이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오고 있기에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자를 카리타스에 쓰고 간 것에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꼈고 그 마음을 전했던 것이다. 다만 내가 베트남에서 만난 사람들과 캄보디아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Asia of friend’ 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해도 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다. ‘국가’와 ‘국민’이라는 단어를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낯선 여행길이 좋은 것은 맛있는 음식, 좋은 풍경,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아름다운 그녀도, 캄보디아 경찰 아저씨도, 베트남 모자 아저씨도, 꾸이띠우 아주머니도 부디 이 시간이 우리만큼 좋았기를...

| 350PPM |

아띠들이 생활 속에서 지키고 있는 지구를 위한 작은 약속들 (Earth & Us)



- Caritas에서 350PPM Campaign을 진행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덜 소비하고 덜 배출하는 등 더 환경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 '350PPM을 합시다!' 라는 권유하거나 거창하게 프로젝트를 하는 방식보다는 그들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싶었다. 그래서 카리타스 센터 내에 이면지 박스를 놔두고 종이가 모이면 이면지를 이용해서 선물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이면지가 꽤 모여서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선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이면지함을 스태프들이 잘 이용해 주어서 뿌듯했고 우리도 한국어, 영어수업을 진행할 때 의식적으로 쓰고 있다.

- 구멍 난 티셔츠로는 빈곤퇴치캠페인 용 현수막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고, 구멍 난 양말, 찢어진 바지를 이용한 선물도 구상 중에 있다.
- 비닐봉지 및 일회용품이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는 이 곳에서 우리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에서 시작 된 우리의 장바구니, '엣팅' 이 (No비닐봉지) 라는 이름을 가진 플라스틱 통을 애용하며 비닐봉지 및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커피 5잔을 Rock&rock에 받아보았는가? 안받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던가.. ㅎㅎ)
- 잔반 줄이기! 잔반이 뭐지??? 우리팀은 엄청난 식성에 잔반 걱정은 하지 않는다. (부끄)



더불어 함께 살기



| 이야기모임, Jam! |

잼은 즉석합주를 뜻한다. 즉석에서 각자의 연주가 모여 잼이 되듯, 팀원들 각자의 이야기들이 모여 어우러지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뜻한다.

5차 잼(경미) : 캄보디아에 들고 온 책들 중 추천해주고 싶은 책 이야기와 윤독



간달 팀이 추천하고 싶은 책

- 『PAPER』 : 오래된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는 감수성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독창성까지. 오빠가 사 온 잡지를 훑쳐보던 아이가 벌써 이만큼 자라 이 잡지를 소개하고 있다니 기분이 꿈기꿈기.(동동)
-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 비록 환상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류시화 시인의 인도 여행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추억들. (미미)
- 『이야기의 힘』 : 영화, 드라마, 책...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한 번 읽어보면 좋은 책. (쌈뽕)
-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 류시화의 시집은 좋아하지 않지만 우연히 읽게 된 그가 엮은 잠언 시집은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이니)
- 『형제』 : 중국 개화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 읽어보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소뽕)

6차 잼(태운) : 영화 ‘메멘토’를 함께 감상하고, 각자의 소감을 나눔



줄거리

사고로 10분마다 최근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단기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을 가진 레너드, 그는 아내를 성폭행하고 죽인 범인을 찾아 복수를 하려 한다. 단기기억상실자인 그가 믿을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남긴 메모들 뿐이다. 자신이 들고 다니는 사진들과 몸에 새겨진 기록들에 의지하여 범인을 찾아가는 레너드의 노력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각자의 한 마디

태운 - 주인공이 전화를 받다가 허벅지에 있는 문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장면, 그 장면은 영화 속 반전의 시작, 영화의 이야기가 한 번에 뒤집어지는 큰 전환의 계기가 되는 장면인 것 같다.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지금 여기 깐달에서의 생활이다.

경미 - 누군가의 삶의 이유가 되고 싶다.

여인 - 처음으로 다같이 본 영화가 태운이가 좋아하는 ‘메멘토’라는 영화라 는게 더 좋았고 그 덕에 팀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하나 더 생겼다. 그리고 이 영화는 내가 살아왔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권희 - 이 감독(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었다.

동효 - 메멘토 증후군... 모두의 기억은 왜곡되었다는 생각으로 너는 물론, 나의 기억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영화 절대 보지 마시길 바란다.

부록 #7 어덯네 가족과 함께한 동물원 나들이

23.11.2014

프놈 타마오 동물원





고즈넉한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문을 열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꽃단장을 하고 있는 어댑의 아내. 전날 급작스럽게 결정 된 동물원행으로 잔뜩 신이 난 표정의 그녀였다. 난 생 처음으로 동물원에 간다는 그녀의 딸. 평소와는 다르게 원피스와 귀여운 귀걸이를 한 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잠도 덜 깬 나에게 점심을 준비했냐는 물음...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다 잠든 난 아차 싶었다. 그녀에게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냐고 되물자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 너무 당황스러웠다. 아직 약속시간까지는 1시간여 남아있는 상태였고 얼른 그녀를 돌려보내고 팀원들을 깨웠다. 부랴부랴 집에 있는 바게트며 과자, 음료수를 챙긴 채 동물원 가는 길에 먹거리를 좀 더 사기로 결정하고 약속 장소인 Caritas센터에서 어댑네 가족을 기다렸다.

센터에는 당장 내일부터 타 지역으로 실습을 가는 친구들이 모여있었다. 평소 우리의 수업들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들과 관계가 두터웠던 친구들이기에 인사로만 작별을 하기엔 너무 아쉬웠다. 그런 그 들이 떠난다고 하자 미미는 마침내 눈물을 터트리려고 말았고 약속시간이 된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동물원으로 출발하는 차에 올라탔다.

출발.

우리는 어댑, 그의 아내, 그의 딸과 함께 동물원에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댑의 막내처남이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그가 동행 한다고 하니 썩 내키지 않았

다. 차마 기대에 가득 찬 그를 되돌려보낼 수 없어 동행하기로 했다. 우리는 어댑의 딸 그의 아내를 위해 흔쾌히 앞좌석과 뒷 좌석을 내어주고 집간에 올라탔다. 그때 철 없는 스물세살이나 먹은 그 청년이 앞 좌석에 올라탔다. 하하!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 청년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미안한 탓인지 계속된 만류에도 집간에 올라탄 어댑의 아내와 딸 비싸이, 첫 번째로 맞닥뜨린 현지인에 대한 불만, 잔뜩 일그러진 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재치 있는 팀원들의 농담으로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 아직 덜 성숙한 탓인지 화가 나는 내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다.

아무튼! 다시 신나게 출발 한 집칸의 우리는 캄보디아 노래, 한국 가요를 번갈아 불러가며 신나게 달렸다. 갑자기 멈춰선 자동차 어댑은 나를 끌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가 가리키고 있는 맛깔스럽게 생긴 음식. 대나무로 쌓인 빨간 꼬치는 생김새가 몹시 닭다리와 흡사해서 나는 어댑에게 ‘삿모안’(닭고기)? 이냐고 묻자 그는 아빠미소로 대답했다. 평소 닭고기를 매우 좋아하는 나로써는 참을 수 없었다. 덩석 집어들고 와구와구 먹기 시작한 나를 보며 웃음을 터트린 어댑. 놀란 내가 묻자 그제서야 개구리라고 말했다. 짓궂은 어댑. 하지만 매콤한 게 너무 맛있어 멈출 수가 없었다. 결국 한 마리를 다 먹고 몇 개를 사서 차로 돌아가 팀원들에게 권하자 차마 젓가락을 들지 못하는 경미, 역시나 오물오물 잘 먹는 여인누나. 평소 찌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윤이는 몇 번 먹는 듯 싶더니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동물원에 도착하여 평소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수 많은 동물들을 보았다. 동물원에 처음 온 비싸이는 눈이 왕방울만해져서 눈에 보이는 새 마다 “모언”이라고 외쳤고 (공작에게 예쁜 닭이라고 했을 때가 가장 웃겼다) 딸 바보 어댑은 그런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어쩌다 도착하게 된 수달 앞 평소 수달을 좋아하는 난 수달 앞에 멈추어 섰다. 수달 우리 앞에는 수달이 좋아하는 먹이를 팔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수달들은 익숙한 듯 사람들이 그 먹이를 사서 먹여주길 기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에게 갇혀있는 동물들과 그 동물을 돈 주고 보러 온 나... 본디 야생동물 보호소였던 곳을 어떤 외국인이 사서 동물원으로 만들었다는 뒷 이야기에 마음이 더 무거워져 그 이후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동물들을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우람한 호랑이를 보며 동물원 나들이를 마쳤고 우리는 동물원 앞 커다란 평상에 자리를 펴고 맛있게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행복해하는 비싸이와 어댑가족을 보며 나도 모르게 흐뭇해지는 하루였다.

이름만 들어도 그리운 그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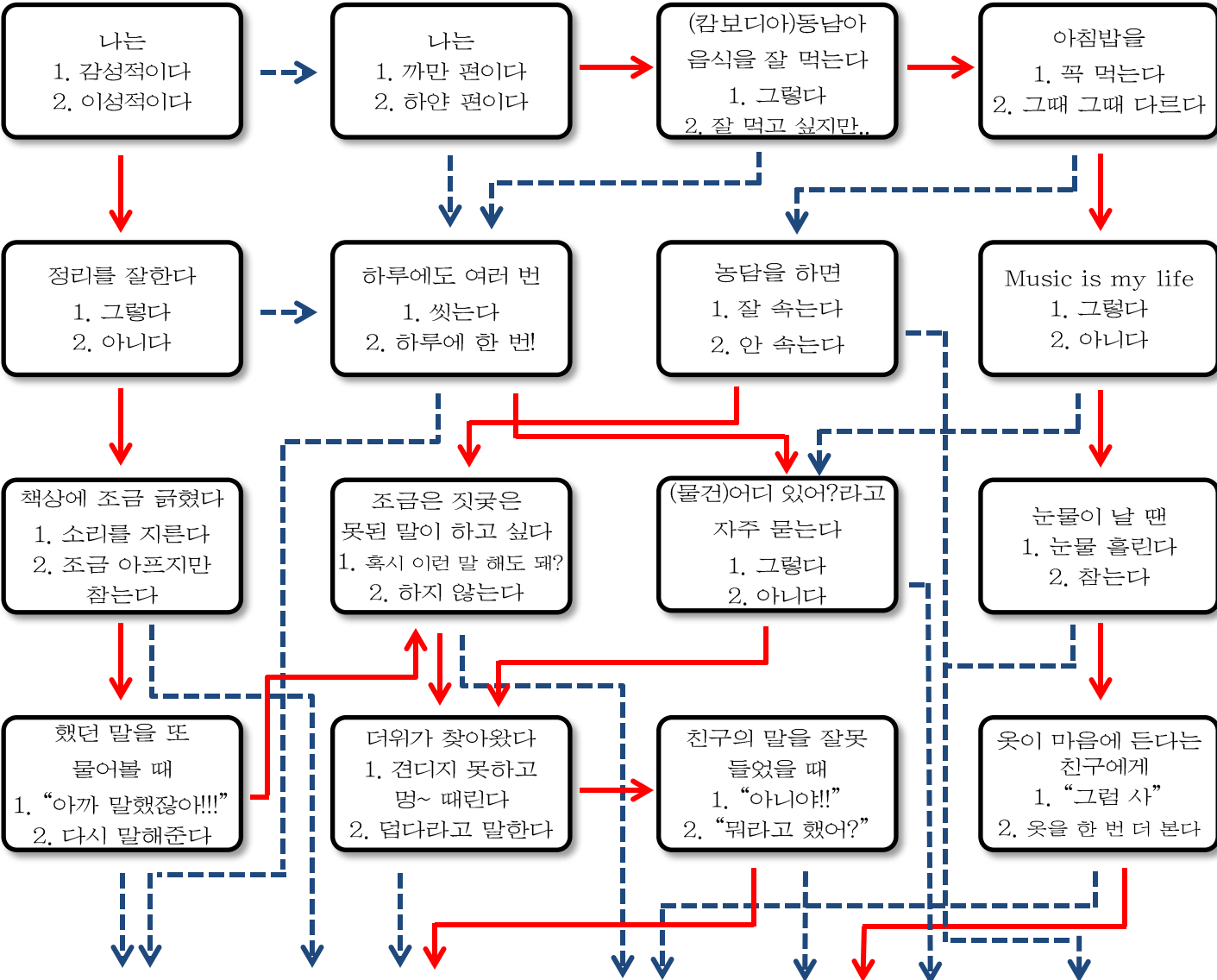


그대들의 이야기



크놈찌어너어나? 나는 누굴까?

1번 →
2번 →



이권희(프렙소뽀)
튼튼하고 단단하며 일을 잘하고 위생을 중요시 여기는 편이다. 하지만 조금 다혈질 기질이 있다. 상남자!



김태윤(쌈뽕)
남의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있지만 생각이 많아 서이다. 더위에 약한 그에게는 김염살이라는 별명이 있다.



이여인(이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한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한다. 상처 주는 말을 밀박 뿌려가며 잘~ 말한다.



박동효(동동)
장난기가 가득해서 가끔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는 그녀. 그녀의 취미는 (잃어버린) 물건 찾기라 하네~ ♪



김경미(미미)
순수해서 작은 농담에도 큰 반응을 보인다. 자기 감정에 솔직해서 눈물을 참지 않고 눈물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여인

캄보디아에서 5개월간의 꿈을 꾸는 중인 것만 같다. 꿈 같은 캄보디아.

라온아피를 하겠다는 것은 내 선택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런 팀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각각 다른 5명이 5개월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타이밍에 같은 나라에 같이 오게 된 것이 정말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캄보디아에 와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 하고 싶은 말도 잘 전달할 수가 없다. 고요한 세상이라는 시를 보면서 말을 못하는 게 그리 부정적이고 나쁜 일이 아님을 생각해본다.

고요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의 눈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하고
또 침묵을 달래 주기 위해
정부는 한 사람당 하루에
정확히 백예순일곱 단어만 말하도록
법을 정했다

전화가 울리면 나는 '여보세요'라는 말 없이
가만히 수화기를 귀에 댄다
음식점에서는
치킨 누들 수프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나는 새로운 방식에 잘 적응하고 있다

밤 늦게
멀리 있는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스럽게 말한다
오늘 쇠아홉 개의 단어만 썼으며
나머지는 당신을 위해 남겨 두었다고

그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녀가 자신의 단어를 다 써 버렸음을 안다
그러면 나는 '사랑해' 하고 천천히 속삭인다
서른두 번하고 3분의 1만큼
그 후에 우리는 그냥 전화기를 들고 앉아
서로의 숨소리에 귀 기울인다

- 제프리 맥다니엘



태운

Worry

When I came cambodia, I worried about washing and sleeping.
When I lived here for 1 week, I worried about eating the Cambodia food.
When I lived here for 2 week, I worried about relationship with our team.
When became 1 month, I worried about that how to showed our activity in here to another people.
When passed away 2 month, I worried about relationship with locale people.
And, in future I want to worry about only how to be happy in here.
I want the happiness that come from the people with me.

People

Now, for me, I know the meaning of them.
All the people who I met since that I know the Raonatti and positioned on Raonatti Cambodia team are very important for me.
Like all meetings are already arranged, all the people let me know things that I didn't know, and let me feel things that I didn't feel.
Whenever I find my deficient things, cambodia people give me power and make me brave.
They make a reason that I want to live here more and more.
Thanks to all the people who give me love.

고민

내가 처음 캄보디아에 왔을 때 씻고 자는 것을 고민했다.
여기에서 산지 1주일이 되었을 때 음식을 고민했다.
여기서 산지 2주째가 되었을 때에는 같은 팀원들과의 관계를 고민했다.
한 달이 다 되어갈 때 즈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지가 궁금했다.
두 달이 지나갈 때에는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고민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서 오직 내가 행복해지는 법만 고민하고 싶다.
그 행복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로부터 왔으면 좋겠다.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만 같다.
내가 라온아띠를 알게 되고, 라온아띠의 캄보디아팀으로 배치되어 지금 이 곳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 것 같다.
마치 이곳에서의 모든 만남이 정해진 것처럼, 이 곳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해준다.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내가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준다.
나를 사랑해 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

- My reflection of Mid-Term evaluation
중간평가 개인 소감



동호

어떤 영화를 보다가 앵글을 조금 옆으로 돌려서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감독의 센스에 실망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내 인생이 영화였다면...? 정말 정말 지루했을 것 같다. 정말 많은 관객을 실망시켰을 것이다.
 그 동안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딱 두 가지만 보았다.
 조금도 옆으로 가지 않았고 그것이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상식, 기본, 자연스러웠던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낯설어지고 익숙한 일들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그 동안 나는 얼마나 즐겁던가. 얼마나 감격있었던가.
 나의 시선은 영화감독의 앵글처럼 편협하다.
 움직이지 않는 앵글 같은 나의 시선은 축소, 확대, 정지, 재생만을 반복. 반복. 반복.
 나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잘못 이해하고 있고 나의 가능성과 성찰적 삶을 가로막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나임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물론 아직도 보고 싶지도 담고 싶지도 않은 일들 앞에서
 '흐르는 것이 이렇게 괴롭다면 차라리 갇혀서 썩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같은 갈잡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As much as you understand is as much as you misunderstand

경미

그때의 나는 미안해, 라는 그 말조차도 자신이 없었다.

내 뒤에서 닫히던 문 사이로 팔찌 파는 소년이 손을 끼운 채 나를 똑바로 바라 보고 섰다. 문 손잡이를 놓을 수도 없이 눈을 마주해야 했던 그 시간이 너무 길다. 필사적으로 손을 끼워 넣던 내 마음은 어땠을까. 또 비 오는 거리로 너를 다시 보내야 했던 내 마음은 어떻게 할까. 내게 붙여진 '국제 자원 활동가' 라는 부끄러운 이름과 고민들을 세 달째까지도 마친표 찍지 못한 채 끌어들고 있다.

중학교 때만 해도, 장래 희망 칸에 '외교관'을 착실히 써내었다. 피상적이던 그 생각들이 '개발학, 발전학'으로 구체화 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역사 선생님을 만나면서였다. 처음으로 한국의 개발 역사를 제대로 배우면서 '이면'이라는 것을 새롭게 자각하기 시작했다. 나의 미래에 '개발'이라는 것이 큰 방향이 되었지만, 한번도 큰 꿈을 꾸지는 않았다. 개발 도상국을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라든지 그런 목표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한 나라가 발전의 과정을 밟고 있다며 그 과정이 최소한만이라도 평화롭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작은 생각이었다. 만약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요즘 들어서 그것마저도 욕심이구나, 생각한다. 결국 나는 안정되고 보장된 곳에서 한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기에 지금도 내가 볼 수 있는 것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센터를, 마을을 벗어나 더 많이 마주치게 되는 이들은 누구인가. 처음에는 놀랐을 정도로 나에게 부담스러웠던 것들도 모두 무감각해지고 있는 내가 너무 싫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 차라리 주어졌다 한들 정작 버틸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차라리 그런 환경에 주어졌다면 하는 오만한 생각마저 한 적이 있었다. 동정심, 오직 감정과,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 생각이며 국내 훈련으로 배운 것은 그것을 버리는 일임을 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장기 사이클로 돌아가는 지역사회에 폐가 되지 않기를, 수 없이 새기고 새기고 떠올리고 내 노트 첫 장에 적어두며 가장 큰 배움으로 새기려 했다. 그러나 자꾸만 내가 당장 내 눈 앞의 문제를 합리화 하는게 싫고, 언젠가부터 조금씩 무감각해지는,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끔찍해진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무감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내 욕심이래도, 나는 내 욕심이 나의 개발이고 발전학임을 안다. 내가 이곳에 살고 있고, 내 마을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질 수 밖에 없는 욕심임을 안다. 설령 후에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더라도, 스무살의 나는,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맙다. 이렇게 자책하고 눈물짓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지. 또 그것마저도 지금 이 순간에만 내게 주어진 행복이겠지. 내가 얼마나 행복 한지는, 또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지는 누구에게도 평가 받지 못하는 오로지 하나의 진실임을 믿는다. 또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 10월의 나보다도, 12월의 나보다도 행복해야지. 그때의 나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A man wearing a light-colored bucket hat and a dark long-sleeved shirt is holding a young child. The child is wearing a colorful patterned shirt and dark pants, and is smiling broadly. They are standing in a garden with various plants and trees in the background.

권희

저 멀리 떨어진 프놈펜의 높은 건물이 보일 만큼 공기도 맑고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이 곳
아침에 문을 활짝 열고 아침을 맞이하면 그 만큼 상쾌한 아침이 아닐 수 없다.
이 곳의 사람들의 맑은 눈망울 만큼 도화지 같이 순수하다.
처음 이곳에 와서 많은 것들을 '불신' 하던, 때 묻은 내가 부끄러울 만큼

난 매사에 아무지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냈고 이 곳에서도 그렇게 지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게 되었다.
불신했던 다른 사람들, 서로를 이해해 가고 서로에게 맞춰주는 팀원들...
굳게 닫혀 있었던 마음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CD친구들을 보내던 날 울먹거리며 손 흔들던 내 친구 씬은.
프라이옹 마을을 떠나오며 섭섭한 마음에 꼭 안아준 사본, 그런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 아이
한 달만에 찾아간 사본에게 달려가 '늑 네악' (니가 그리웠어)이라고 하며 안아주자
"늑. 늑" 이라고 두 번이나 그리웠다고 말해주는 사본
나는 이 곳에서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게 지내고 있다.

저 멀리 펼쳐진 지평선에 드문드문 놀이 솿아오른듯근 야자수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어렵다.
3개월간 던지고 있었던 질문들... 아직 계속해서 답을 찾아 가고 있고, 또 다른 질문들을 내게 던지며 나만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중이다.
그 질문들의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나에게 큰 성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남은 2개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 받고 돌아가길.



Being able to keep and retrospect all the good memories, enchant and fulfill your life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부하게 합니다.

- 한 남은 사진첩에 적힌 문구